**한화증권 - Research**

오늘 민성이랑 같이 한화증권 리서치 파트로 면접보고 왔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없어서 전문성 면접인지 인성면접인지 헷갈렸는데 인성면접이더군요

리서치,자산운용 등 각 파트별로 0명 뽑는다고 했는데 리서치쪽은 면접인원이 55명정도였습니다. 5배수가 좀 넘네요.  MBA출신들은 따로 면접을 보았고요

반이상은 지점영업이었고 의외로 자산운용쪽이 20여명으로 적었습니다.

7명씩 팀을 짜서 실무진면접을 보았는데 우선 들어가서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위주로 질문을 하던데 제 경우는

* 카이스트면 보통 파생으로 많이 가던데 왜 리서치 지원했냐?
* 도대체 네 강점은 뭐냐
* 네 성격 어떤거 같냐?
* 애널리스트라면 어떤 능력이 중요해 보이냐
* 투자경험 있던데 네 투자철학은 뭐냐

이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대충 막았는데 마지막 질문에선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거 같더군요.

다른 사람 질문으론 금융으로 진출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냐, 최종 커리어목표가 애널리스트냐, 증권사 리서치센터랑 SERI, LG경제연구소 차이가 뭐같냐. 요새 세계 장세가 어때보이냐? 갈등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저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리서치쪽 면접 본 사람들 스펙은 최하가 성균관대나 이화여대 정도였고 대다수가 연고대였습니다. 아버지가 금융권에서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인 사람도 있었는데 이사람은 골드만삭스인턴 경험도 있더군요.(면접은 그다지 인상적으로 잘 보진 못했습니다) 다들 어지간한 인턴 경험은 있어보였습니다.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1지망이 리서친데 혹시 리서치 안되면 2지망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묻길래 2지망이 자산운용이라서 손들고 나왔습니다.(저희 팀에선 7명중 3명이 손들었습니다.)

면접비는 3만원 주더군요(적자입니다...큭...)